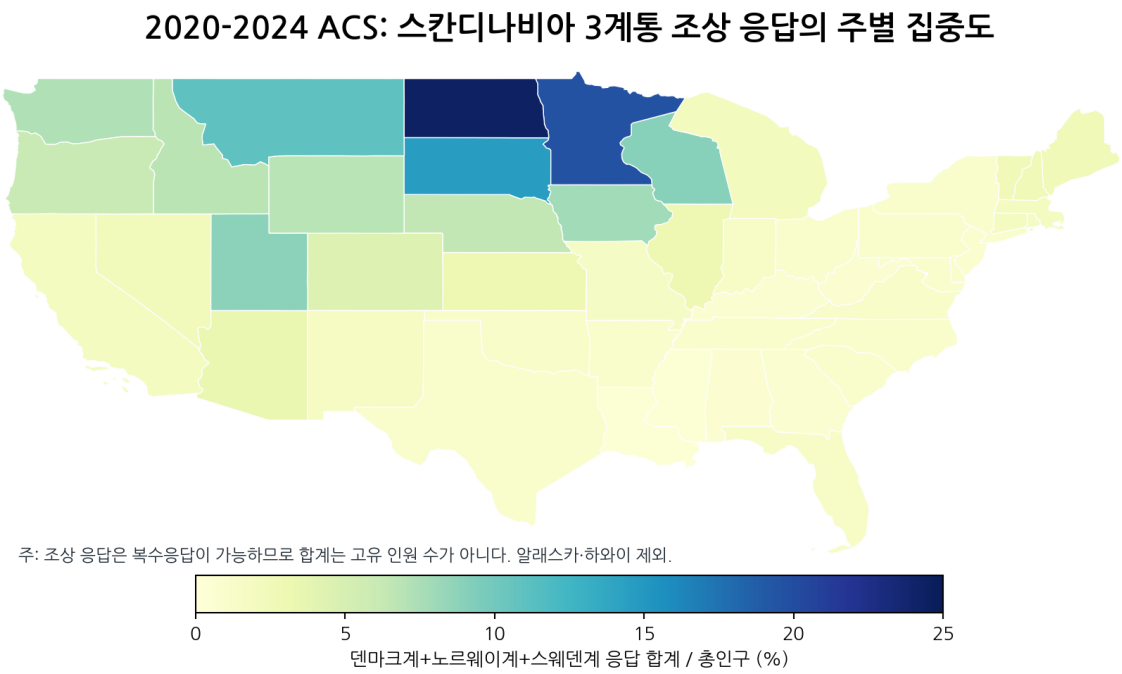
연구보고서 · 2026

미국의 스칸디나비아계 이민과 정착

노르웨이계·스웨덴계·덴마크계의 이동 경로, 지역사회 형성, 사회경제적 유산과 오늘의 인구지리



작성자 코리아베스트 https://koreabest.org
작성자 The American Newspaper https://americannewspaper.org

자료 기준: U.S. Census Bureau, 2020-2024 American Community Survey 5-Year Estimates, Table B04006 및 B01003. 역사 분석은 미국 의회도서관, 국립문서기록관리청, 국립공원관리청, 주 역사학회와 주요 학술연구를 종합하였다.

요약

미국의 스칸디나비아계 정착은 단순히 '북유럽 사람들이 추운 곳을 선호했다'는 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 19세기 중반 이후 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의 인구 증가, 토지 세분화, 농촌 빈곤과 고용 불안, 산업화의 충격, 종교적 비국교도 운동, 정치적 자유화가 송출 압력을 만들었다. 미국에서는 홈스테드법, 철도회사의 토지 판매, 미시시피강·오대호·대륙횡단철도망, 높은 임금과 토지 소유 가능성이 흡인 요인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실제 이동의 방향을 결정한 것은 선발 이민자의 편지와 송금, 가족·교회·마을 네트워크, 선사와 철도 토지대리인의 정보였다.

정착의 핵심은 위스콘신에서 미네소타와 다코타로 이어지는 상부 중서부·북부 대평원이었다. 노르웨이계는 위스콘신의 구릉·낙농 지대와 미네소타·다코타의 곡물농업 지대에 특히 강하게 집중했고, 스웨덴계는 일리노이·아이오와·미네소타의 농촌과 시카고·록퍼드·미니애폴리스 같은 제조업 도시를 동시에 형성했다. 덴마크계는 수가 적고 분산도가 높았지만 아이오와·네브래스카·위스콘신·미네소타의 농업, 도시 장인·상업, 그리고 유타의 모르몬 개종 이주에서 독자적 흔적을 남겼다. 19세기 말 이후에는 워싱턴·오리건의 어업·벌목·조선·항만경제와 몬태나·아이다호의 광업·철도·농업으로 2차 이주가 확대되었다.

루터교회는 예배기관을 넘어 이민자 정착의 사회기반시설이었다. 교회는 언어, 신용, 구호, 학교, 신문, 결혼시장, 지도자 양성을 연결했다. 다만 루터교는 하나의 통일된 공동체가 아니었다. 국적, 신학, 경건주의, 교회정치, 미국화 문제를 둘러싸고 수많은 교단과 분파가 경쟁했다. 이 분열은 갈등인 동시에 학교·출판·대학·병원·상호부조단체를 촘촘히 만드는 조직적 에너지이기도 했다.

스칸디나비아계 지역에서 높은 문해력, 학교 참여, 협동조합, 지방자치, 농민운동, 진보주의와 노동운동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북유럽 문화' 하나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소규모 자영농의 비교적 넓은 분포, 교회·학교 조직, 철도와 시장 접근, 특정 작물체계,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소유 구조, 공화당·진보당·사회당·농민노동당의 경쟁, 도시 노동시장의 구조가 함께 작동했다. 같은 스칸디나비아계 안에서도 부유한 농민·도시 기업가·목사·전문직과 광부·벌목공·공장노동자의 정치적 선택은 달랐다.

이 정착사는 미국의 서부 팽창과 분리될 수 없다. 이민자들이 '빈 땅'으로 인식한 농지는 다코타·라코타·오지브웨 등 원주민의 조약지·생활권이었고, 연방정부의 조약 파기와 강제이전, 군사력, 토지 측량과 철도 보조를 통해 시장에 편입되었다. 스칸디나비아계 이민자는 유럽에서의 주변적 농민·노동자 지위를 벗어났지만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백인으로 분류되어 토지·귀화·정치참여에서 구조적 이점을 누렸다. 따라서 이들의 성공은 근면성만이 아니라 인종화된 시민권·재산권 체계 속에서 평가해야 한다.

2020-2024 ACS 5년 추정치에서 덴마크계·노르웨이계·스웨덴계 조상 응답을 단순 합산하면 전국 약 839만 건, 총인구의 2.5%에 해당한다. 그러나 개인은 둘 이상의 조상을 보고할 수 있으므로 이는 고유 인원 수가 아니라 '응답 합계'이다. 절대 규모는 미네소타가 약 112만 건으로 가장 크고 캘리포니아·워싱턴·위스콘신이 뒤따른다. 비율은 노스다코타 24.4%, 미네소타 19.6%, 사우스다코타 14.6%, 몬태나 11.0%, 위스콘신 9.1% 순이다. 대도시에서는 미니애폴리스·시애틀·시카고가 큰 절대 규모를 보이지만, 비율은 파고·둘루스·미니애폴리스가 훨씬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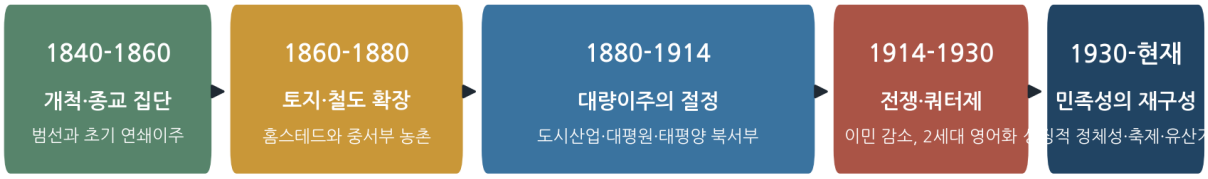
핵심 결론

미국의 스칸디나비아계 문화권은 "민족문화의 이식"이 아니라, 유럽의 농촌변동·미국의 토지정책·철도자본·교회조직·인종화된 시민권·도시산업이 결합해 만들어진 역사적 지역체계다. 오늘날 혈통 정체성은 약해졌지만, 학교·대학·교회·축제·협동조합·지방정치의 제도적 흔적은 공간적으로 지속된다.

목차

1. 개념·범위·자료와 통계 해석
2. 대규모 이주의 배경과 시기
3. 이동 경로와 연쇄이주의 구조
4. 노르웨이계·스웨덴계·덴마크계의 차이
5. 주요 정착 주와 도시·농촌의 비교
6. 교회·가족·학교·신문·상호부조와 문화 유지
7. 교육·협동조합·정치·노동운동의 형성 조건
8. 정착식민주의·백인화·다인종 관계의 비판적 분석
9. 최신 ACS로 본 현재의 인구지리
10. 4개 지역유형과 오늘의 문화·정치·경제적 유산
11. 결론
부록 A. 통계표와 대표 지역
부록 B. 주요 출처와 연구문헌

스칸디나비아계 미국 이주의 장기 시계열



핵심 동력: 인구·토지 압력 + 임금 격차 + 종교·정치 변화 + 미국 토지정책·철도 + 가족·교회 네트워크

그림 1. 대량이주·정착·동화의 장기 시계열

1. 개념·범위·자료와 통계 해석

1.1 스칸디나비아와 북유럽의 구분

이 보고서에서 '스칸디나비아계'는 역사언어학적·관습적 좁은 의미에 따라 덴마크계, 노르웨이계, 스웨덴계를 가리킨다. 세 집단은 북게르만어 계통의 언어, 루터교 국교 전통, 상호 연계된 왕조·정치사, 발트해·북해 경제권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각국의 토지제도, 지역 불균형, 종교운동, 계급구조가 달랐기 때문에 미국 이주와 정착의 패턴도 동일하지 않았다.

'북유럽계(Nordic)'는 통상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에 핀란드와 아이슬란드를 더한 개념이다. 핀란드어는 우랄어족이며 핀란드계 미국인의 핵심 정착은 미시간 상반도·미네소타 철광지대·위스콘신 북부의 광업·벌목·협동조합·사회주의 전통과 연결된다. 아이슬란드계는 규모가 작고 캐나다 매니토바가 더 큰 중심이었지만, 미국에서는 미네소타·위스콘신의 초기 농촌과 유타·노스다코타·서부 일부 지역에 흔적을 남겼다. 따라서 본문은 세 스칸디나비아 집단을 중심에 두되, 지역적으로 얽히는 경우 핀란드계와 아이슬란드계를 별도로 표시한다.

또한 '계(ancestry)'는 현재의 국적이나 출생지를 뜻하지 않는다. ACS의 조상 문항은 응답자가 자신 또는 가족의 혈통·민족적 기원을 자가보고한 결과다. 3세대 이후 미국인도 노르웨이계라고 응답할 수 있고, 한 사람이 노르웨이계와 독일계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따라서 혈통 응답은 문화적 실천의 강도, 언어사용, 정치성향, 최근 이민 여부를 직접 측정하지 않는다.

1.2 자료와 방법

현재 분포는 미국 인구조사국의 2020-2024 American Community Survey 5-Year Estimates를 사용했다. 조상별 추정치는 상세표 B04006(People Reporting Ancestry), 총인구는 B01003에서 산출했다. 소규모 카운티와 도시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려면 1년 자료보다 5년 자료가 적합하다. 2026년 7월 현재 카운티·소도시까지 일관되게 비교할 수 있는 최신 5년 자료가 2024 ACS이다.

보고서의 '스칸디나비아 3계통 응답 합계'는 Danish + Norwegian + Swedish의 단순 합이다. 같은 사람이 둘 이상의 조상을 보고할 수 있으므로 중복이 발생한다. Census 표의 별도 'Scandinavian' 범주는 의미가 포괄적이고 세부 조상과 중복될 수 있어 좁은 합계에서는 제외했다. '북유럽 5계통 응답 합계'는 세 집단에 Finnish와 Icelander를 더한 값이다. 작은 지역의 비율 순위는 표본오차에 민감하므로, 본문 차트는 대체로 인구 5천 명 이상을 별도 제시하고 부록에서 소규모 지역을 구분한다.

역사분석은 미국 의회도서관의 Scandinavian Immigration 자료, National Archives의 Homestead Act 자료, National Park Service의 원주민 토지와 홈스테드 관련 자료, Minnesota Historical Society·Wisconsin Historical Society·Encyclopedia of Chicago 등 지역사 자료, 그리고 Jon Gjerde, Odd S. Lovoll, H. Arnold Barton, Dag Blanck, Mark Granquist, April Schultz 등의 연구를 종합했다.

구분	전국 응답 추정치	총인구 대비
덴마크계	1,134,225	0.3%
노르웨이계	3,920,371	1.2%
스웨덴계	3,335,881	1.0%
세 집단 단순합	8,390,477	2.5%
별도 "Scandinavian" 응답	936,386	0.3%
핀란드계	614,125	0.2%
아이슬란드계	52,773	0.0%
북유럽 5집단 단순합	9,057,375	2.7%

표 1. 2020-2024 ACS 전국 조상 응답. 단순합은 복수응답 때문에 고유 인원 수가 아니다.

2. 대규모 이주의 배경과 시기

2.1 19세기 농촌의 인구·토지 압력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전반의 사망률 하락과 인구 증가는 스칸디나비아 농촌의 토지 압력을 높였다. 상속과 토지 세분화로 독립농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차남·소작인·농업노동자가 늘었고, 지역에 따라 엔클로저와 상업농업이 전통적 이용권을 약화시켰다. 흉작과 가격 변동은 '절대적 기근'보다 장기적인 불안정과 미래 전망의 악화를 통해 이주를 촉진했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1750년부터 1850년 사이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농촌과 도시 모두에서 고용 압력이 커졌다.[2]

노르웨이는 산악·피오르드 지형 때문에 경작지가 제한적이었고, 소규모 자작농 아래에 후스만(husmenn)이라 불린 토지 없는 또는 준소작 계층이 존재했다. 미국 중서부의 토지 소유 가능성은 이들에게 매우 강한 매력이었다. 덴마크는 농업개혁과 협동조합적 낙농 발전이 장기적으로 농촌경제를 강화했지만, 1864년 전쟁의 영토 상실과 경기불황, 농촌·도시 임금격차는 이주를 자극했다.[8]

그러나 가난한 사람 모두가 이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서양 운임과 내륙 이동비를 마련할 최소한의 자원, 여행 정보, 친족의 지원이 필요했다. 따라서 초기 이민자는 완전한 최빈층보다 토지·기술·사회적 연결을 어느 정도 가진 농민·장인·노동자가 많았고, 선발자가 자리를 잡은 뒤 송금과 선표(prepaid ticket)를 보내면서 더 가난한 친족이 합류했다.

2.2 산업화와 임금 격차

산업화는 이주를 억제하기보다 촉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농촌 공업과 도시 제조업은 현금경제를 확대하고 이동 경험을 늘렸으며, 철도·증기선·우편망은 미국의 임금과 토지 정보를 빠르게 전달했다. 스웨덴·덴마크의 장인과 숙련노동자는 미국 도시에서 목공·금속·건설·기계·인쇄업으로 이동할 수 있었고, 여성은 가사노동·봉제·식품서비스를 통해 가족 이주의 자금을 보탰다.

미국의 임금은 특히 숙련 장인과 농업노동자에게 매력적이었다. 덴마크계 자료는 미국 농장임금이 본국보다 현저히 높고 장인 임금은 수배에 달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8] 중요한 것은 절대임금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영업·자녀교육·사회적 상승의 결합이었다. 미국행은 '농민에서 농장주', '장인에서 소상공인', '농촌 청년에서 도시 숙련공'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제공했다.

2.3 종교·정치 변화

스칸디나비아 각국은 루터교 국교 체제를 갖고 있었지만 19세기에는 경건주의, 부흥운동, 자유교회, 침례교·감리교·모르몬 선교가 확산했다. 국교회의 통제, 예배집회 제한, 목회자와 평신도 운동의 갈등은 일부 집단에게 이주 동기가 되었다. 스웨덴의 에릭 얀손 추종자들이 일리노이의 Bishop Hill Colony를 세운 사례나 덴마크의 모르몬 개종자들이 유타로 이동한 사례는 종교적 집단이주를 보여준다.

정치적으로는 농민 대표권 확대, 1848년 혁명기의 자유주의, 노르웨이의 의회정치 성장, 스웨덴·노르웨이 연합 해체를 둘러싼 민족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정치적 개선이 이주를 줄이기도 했지만, 대중교육과 정치동원은 오히려 기대수준을 높이고 미국에 대한 정보 접근을 확대했다. 이민은 억압을 피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더 넓은 토지·임금·시민권 기회를 추구하는 전략이었다.

2.4 미국의 토지정책과 철도자본

1862년 홈스테드법은 시민 또는 귀화의사를 밝힌 성인 가장에게 최대 160에이커의 공공토지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거주·개량 요건과 등록비가 있었으며, 법 시행 기간 연방정부는 방대한 면적을 민간 소유로 전환했다.[5] 토지가 실제로 '무료'였던 것은 아니다. 장비·종자·가축·주택·철도운임이 필요했고, 가뭄·메뚜기·부채·가격폭락으로 농장을 잃는 사람도 많았다.

철도회사는 연방 토지보조를 바탕으로 이민 대리인을 유럽에 파견하고 다국어 광고를 배포했다. 시카고·밀워키·세인트폴을 거쳐 미네소타와 다코타로 이어지는 노선은 정착지를 선형으로 확장했다. 철도역·곡물 엘리베이터·교회·상점·신문사가 결합된 소도시는 농촌의 시장·행정·문화 중심이 되었다. 따라서 정착지의 분포는 자연환경만이 아니라 철도 노선과 토지판매 전략의 결과였다.

홈스테드 정책과 철도 보조는 원주민의 조약지와 생활권을 연방 토지로 재분류하고, 군사적 통제와 강제이전을 전제로 했다. NPS는 홈스테드법 적용 지역이 수많은 원주민 부족의 전통·조약 토지였음을 명시한다.[6] 이 점은 스칸디나비아계의 ‘개척 성공’을 평가할 때 구조적 전제로 포함되어야 한다.

3. 이동 경로와 연쇄이주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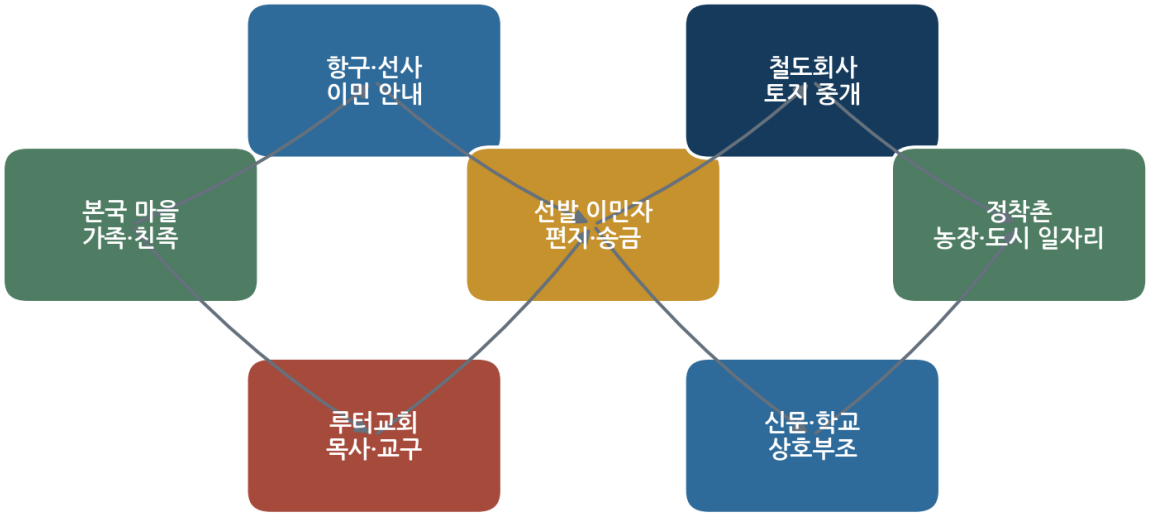
3.1 대서양과 내륙의 복합 경로

초기 이민자는 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의 항구에서 범선으로 출발하거나 북해를 건너 영국 Hull에 도착한 뒤 철도로 Liverpool로 이동해 대서양선을 탔다. 증기선 시대에는 Christiania(오늘의 Oslo), Bergen, Gothenburg, Copenhagen과 영국·독일 항구를 잇는 정기선이 확대되었다. 북미 도착지는 Quebec, New York, Boston, Philadelphia 등이었고, 1855-1890년에는 Castle Garden, 1892년 이후에는 Ellis Island가 대표적 입국지였다.

뉴욕에서 중서부로 향하는 이민자는 Erie Canal·Great Lakes·철도를 이용해 Buffalo, Detroit, Chicago, Milwaukee로 이동했다. Quebec을 통한 경로는 St. Lawrence와 오대호를 거쳐 비용을 줄이는 선택이 될 수 있었다. Chicago와 Milwaukee는 최종 목적지이면서 동시에 농촌 정착지로 가는 환승·취업·정보의 관문이었다. 미시시피강과 철도는 Wisconsin·Minnesota·Iowa·Dakotas를 연결했고, 19세기 말 대륙횡단철도는 Pacific Northwest로의 2차 이주를 촉진했다.

경로의 선택은 출신지역과 선사 계약, 친족의 목적지, 교단, 토지대리인의 추천에 따라 달랐다. 한 마을 출신이 동일 카운티나 교구에 집중하는 '이식된 공동체'가 나타났고, 이는 방언·예배관행·결혼망을 장기간 유지하게 했다.

연쇄이주의 작동 구조: 사람·정보·신용·제도의 순환



정착지는 개인의 "자유 선택"만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관계망과 교통·토지시장에 의해 경로 의존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림 2. 연쇄이주는 가족·교회·신문·철도·토지시장의 결합으로 작동했다.

3.2 연쇄이주와 정착지의 경로 의존성

선발 이민자의 편지는 토지의 질, 임금, 기후, 여행비, 취업처, 교회 유무를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성공담은 과장될 수 있었지만, 낯선 사회에서 위험을 줄이는 실용적 정보였다. 정착한 가족은 임시숙소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번기 노동과 토지구매를 돕고, 교회와 상점에서 통역을 맡았다. 이 네트워크 때문에 이민자는 미국 전역에서 객관적으로 '최적'인 곳을 고르기보다 신뢰할 사람이 있는 곳을 택했다.

교회·교단 네트워크는 이주를 도덕적으로 해석하고 정착을 조직했다. 목사와 선교사는 교구를 순회하며 이민자를 모았고, 예배처는 곧 학교·회의장·상호부조의 공간이 되었다. 민족신문은 본국 뉴스와 미국 정치, 농산물 가격, 토지광고, 취업정보, 부고와 혼인 소식을 결합했다. 철도회사의 광고와 민족 네트워크의 정보가 서로 보강하면서 특정 카운티가 '노르웨이 지역', '스웨덴 지역'으로 누적적으로 성장했다.

연쇄이주의 장점은 초기 비용과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이었지만, 단점도 있었다. 동일 출신집단에 대한 의존은 영어습득과 직업 다변화를 늦출 수 있었고, 교단·고향·계급에 따른 파벌을 낳았다. 농촌 정착지에서는 내부 결혼과 사회통제가 강해졌으며, 도시에서는 동향인 고용주와 하숙집이 저임금 노동을 재생산하는 경우도 있었다.

4. 노르웨이계·스웨덴계·덴마크계의 차이

집단	선호 지역	농업·산업	조직·문화	일반적 경향과 예외
노르웨이계	위스콘신 남서부·서부, 미네소타 남부·서부·북서부, 아이오와 북부, 다코타, 워싱턴	초기 밀·혼합농업, 낙농, Red River 곡물; 벌목·어업·해운·건설	강한 루터교 교구·대학·신문, 5월 17일 행사, Sons of Norway	농촌 집중도가 높지만 Minneapolis·Chicago·Seattle의 도시 노동·전문직도 큼
스웨덴계	일리노이·아이오와·미네소타·서부 위스콘신, Chicago·Rockford·Minneapolis, Washington	곡물·낙농·가족농; 목공·금속·기계·건설·가사노동·상업	루터교와 Mission Covenant·침례·감리교, Swedish press, Vasa Order	세 집단 중 대량이주 규모가 크고 도시 제조업·전문직 진출이 빠름
덴마크계	아이오와·네브래스카·위스콘신·미네소타·미시간, Chicago, Utah	낙농·돼지·혼합농업, 장인·상업; Utah 농업·도시 직업	Danish Brotherhood, Grundtvigian/Inner Mission 분화, folk school·Danish Days	수는 적고 분산도가 높으며 영어화가 비교적 빠르나 지역기관은 뚜렷함
핀란드계(북유럽)	미시간 상반도·미네소타 Iron Range·북부 위스콘신	구리·철광, 벌목, 농업, 협동조합·소비조합	루터교·금주·노동회관·신문, 강한 노동·사회주의 전통	언어적으로 비스칸디나비아계; 광산·산림경제와 계급정치가 핵심
아이슬란드계(북유럽)	미네소타·위스콘신 초기 촌락, Utah·North Dakota·서부 소규모	농업·상업·전문직, 일부 모르몬 정착	소규모 학교·문학·교회·친족망	미국보다 캐나다 매니토바의 집중이 더 크며 미국 내 수는 작음

표 2. 민족별 정착·직업·조직의 비교. 각 집단 내부의 계급·지역·성별 차이를 단순화한 유형화다.

4.1 노르웨이계: 가족농·교구·북부 수변경제

노르웨이 대량이주는 1825년 Restauration호의 종교적 개척 이주를 상징적 출발점으로 삼지만, 본격적 증가는 남북전쟁 이후였다. 1860년대 말 미국의 노르웨이계는 4만 명을 넘었고 1880년대에는 노르웨이 전체 인구의 상당한 비율이 미국으로 이동했다.[3] 초기 Wisconsin 정착지는 구릉과 목초지, 오대호 접근성, 기존 친족망 때문에 중요했으며, 이후 Minnesota와 Iowa, Dakotas로 서진했다.

농업에서는 초기 밀과 혼합농업, 이후 낙농과 축산, Red River Valley의 대규모 곡물 생산이 결합했다. 가족노동을 기반으로 하되 계절노동·이웃 간 노동교환·농기계 공동사용이 나타났다. 토지 소유는 독립성과 시민권의 상징이었지만, 상업화와 부채에 대한 의존도 컸다.

도시 노르웨이계는 Minneapolis의 건설·제분·인쇄·상업, Chicago의 목공·건축·서비스, Duluth의 항만·철도·제재, Seattle-Ballard의 어업·조선·해운에 참여했다. 태평양 북서부의 피오르드·섬·산림은 친숙한 생태로 인식되었지만, 실제 이동은 철도와 해양 노동시장, 중서부에서의 2차 이주가 더 직접적인 요인이었다.

4.2 스웨덴계: 농업 식민지와 도시 제조업의 이중성

스웨덴계는 19세기 스칸디나비아 대량이주에서 가장 큰 집단이었고, 1840년대부터 집단 정착의 전통을 만들었다.[9] Illinois의 Bishop Hill은 종교공동체의 대표 사례이고, western Illinois·Iowa·southern Minnesota·western Wisconsin에 농업 식민지가 형성되었다. 이후 Minnesota의 Chisago·Kandiyohi·Isanti 등 지역은 강한 스웨덴계 문화권이 되었다.

스웨덴계는 농촌 정착과 동시에 도시 노동시장에 빠르게 진입했다. Chicago에서는 목공·건축·금속·기계·인쇄·가사노동, Rockford에서는 가구·기계·제조업, Minneapolis에서는 건설·상업·전문직이 중요했다. 숙련 장인과 교육받은 이민자는 민족은행·보험·신문·병원·대학을 만드는 중산층으로 성장했고, 미숙련 노동자와 여성 서비스 노동은 계층의 하부를 구성했다.

종교적으로는 Augustana Lutheran 전통이 강했지만 Mission Covenant, Baptist, Methodist 등 자유교회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다양성은 스웨덴계가 단일한 국교회 문화를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종교시장 속에서 재조직되었음을 보여준다.

4.3 덴마크계: 분산 정착·낙농·종교적 다원성

덴마크계 이민은 노르웨이계·스웨덴계보다 규모가 작고 더 분산되었다. 1840-1940년 약 37만5천 명이 미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산되며, 1864년 전쟁 이후의 경제·정치 충격과 미국의 토지·임금 기회가 중요한 동력이었다.[8] Iowa, Nebraska, Wisconsin, Minnesota, Michigan에 농촌 정착지가 형성되었고 Chicago와 Omaha 같은 도시에도 상업·장인 공동체가 나타났다.

덴마크의 낙농·축산·협동조합 경험은 미국 중서부에서 실용적 자산이 되었으나, 미국의 덴마크계 협동조합을 본국 문화의 직접 복제로만 보기는 어렵다. 철도·냉장·도시 우유시장, 토지규모, 농민단체, 주법이 현지 제도를 결정했다. Danish Brotherhood, 독서회, 민족신문, folk school은 언어와 정체성을 유지했다.

종교적으로 Grundtvigian과 Inner Mission 계열의 갈등은 '즐거운 덴마크인'과 '엄숙한 덴마크인'이라는 문화적 구분으로 표현되기도 했다.[8] 모르몬 선교를 받아들인 덴마크인들은 Utah로 집단 이동해 Sanpete County와 Salt Lake권의 농업·종교 공동체에 편입되었다. 이는 덴마크계 분포에서 Utah의 높은 수치가 나타나는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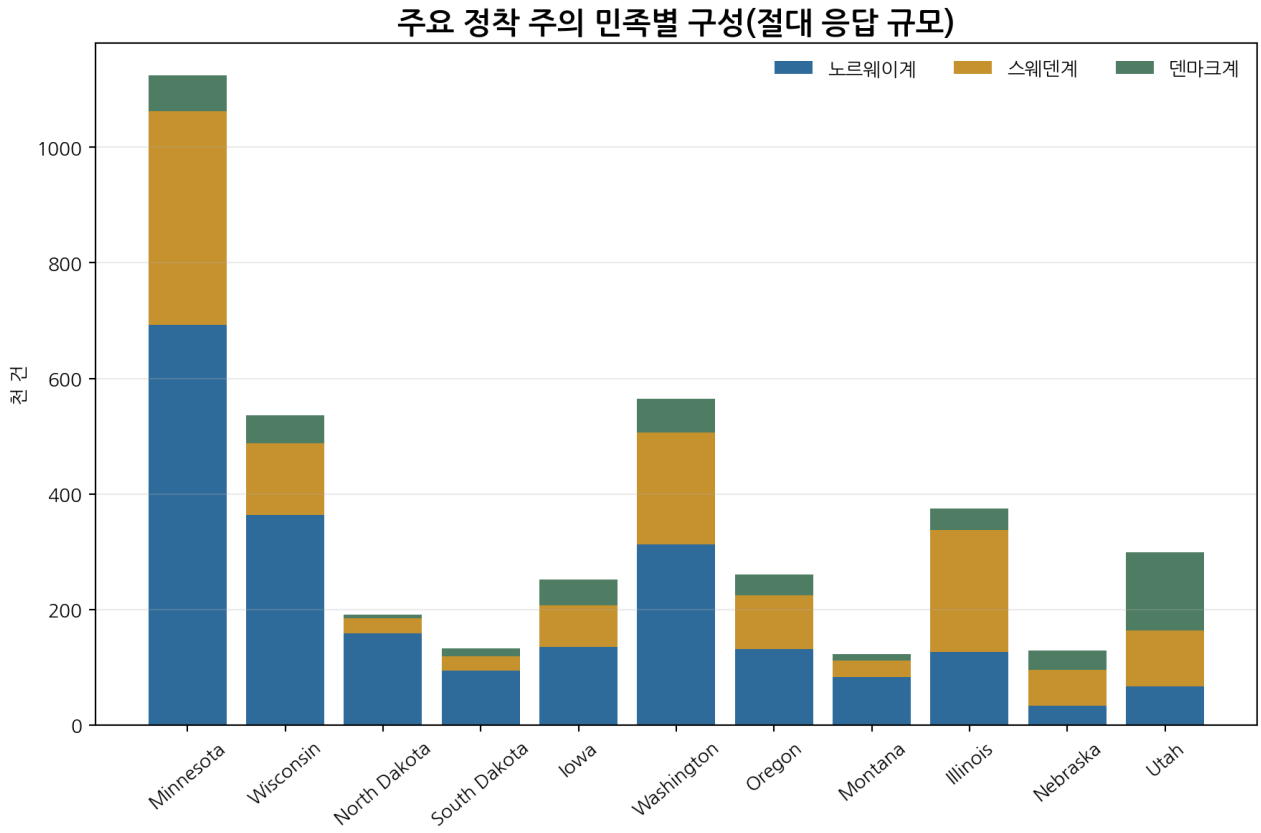


그림 3. 주요 주의 민족별 조상 응답 구성. Minnesota는 노르웨이·스웨덴계가 모두 크고, Utah는 덴마크계의 독특한 집중이 보인다.

5. 주요 정착 주와 도시·농촌의 비교

5.1 미네소타: 핵심 문화권의 중심

Minnesota는 절대 규모와 제도적 유산에서 미국 스칸디나비아계의 중심이다. 남부·중서부의 농경지, Red River Valley, 북동부 항만·산림·광업 지대가 서로 다른 정착경제를 제공했다. Norwegian immigrants는 1850년대부터 빠르게 증가했고, Swedish immigrants도 1850-1930년 사이 대규모로 유입되어 농촌과 도시 양쪽을 강화했다.[7][10]

Minneapolis-St. Paul은 농촌 이민자의 시장·교육·출판·전문직 중심이었다. Minneapolis의 제분·목재·건설·상업과 St. Paul의 철도·도매·행정은 농촌 자본과 노동을 흡수했다. St. Olaf, Gustavus Adolphus, Augsburg, Concordia, Luther College(인접 Iowa)와 같은 교단 대학은 목회자 양성에서 출발해 지역 중산층의 교육 사다리가 되었다.

Duluth와 Iron Range는 농촌 가족농과 다른 계급구조를 보였다. 항만·철도·제재·광산경제는 임금노동과 노조, 다민족 접촉을 강화했고, 핀란드계·슬라브계·이탈리아계와의 연대와 갈등이 나타났다. Minnesota의 스칸디나비아성은 따라서 Twin Cities의 전문직·교외 중산층, 농촌 자영농, 북부 산업노동이라는 세 층의 결합이다.

5.2 위스콘신: 초기 관문과 농업 다양성

Wisconsin은 Illinois·Great Lakes에서 상부 중서부로 이동하는 초기 관문이었다. 남서부의 Norwegian settlements, 서부·북서부의 Norwegian·Swedish 농촌, 도시 Milwaukee와 Madison의 상업·교육 기능이 결합했다. 구릉과 숲, 비교적 이른 토지개방은 Norwegian smallholders에게 매력적이었고, 후대에는 낙농과 혼합농업이 중요해졌다.

Milwaukee는 독일계가 압도적인 도시였지만 Scandinavian workers와 상인도 제조업·건설·항만·서비스에 참여했다. Madison은 주정부·대학·전문직 중심으로서 농촌 출신의 세대상승을 흡수했다. Wisconsin의 사례는 민족문화가 단독으로 작동한 것이 아니라 독일계 협동조합·진보주의, 주립대학의 농업확장, 낙농산업과 결합해 지역적 제도를 만들었음을 보여준다.

5.3 노스다코타·사우스다코타: 높은 비율과 대평원 농업

Dakotas는 오늘날 스칸디나비아계 조상 비율이 가장 높은 주들이다. Northern Pacific와 Great Northern 철도, 홈스테드 토지, Red River와 prairie grain economy가 Norwegian immigrants를 강하게 끌어들였다. North Dakota의 농촌 카운티와 Fargo-Grand Forks권에는 Norwegian concentration이 특히 높고, Icelandic·Danish의 작은 집단도 존재한다.

대평원 농업은 기후 위험과 시장변동, 곡물 엘리베이터·철도 운임·신용에 대한 종속을 낳았다. 이 조건은 Farmers' Alliance, Nonpartisan League, Farmers Union, cooperative elevators와 같은 농민정치의 토대가 되었다. 스칸디나비아계 농민이 참여율이 높았던 것은 교회·학교의 조직 능력과 문해력뿐 아니라 독점적 철도·곡물시장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Fargo는 농업서비스·교육·의료·금융의 도시 중심으로 성장해 농촌의 높은 민족비율을 도시 서비스경제로 연결했다. South Dakota에서는 Norwegian·Danish·Swedish settlements가 German-Russian과 Czech communities 등과 인접해 다민족 농촌정치를 형성했다.

5.4 아이오와·네브래스카: 가족농·철도타운·덴마크계의 가시성

Iowa의 북부와 서부는 Norwegian·Danish·Swedish family farms가 분포했고, Decorah는 Norwegian-American press와 Luther College의 중심이 되었다. Danish settlements는 Elk Horn·Kimballton 등 서부 Iowa에서 문화유산을 유지했으며, 낙농·돼지·옥수수의 혼합농업이 시장과 연결되었다.

Nebraska는 철도 토지판매와 홈스테드가 결합한 정착지였다. Danish communities와 Swedish settlements가 동부와 중부에 나타났고 Omaha는 상업·육가공·철도 노동의 도시 거점이었다. 농촌 공동체는 교회와 학교를 통해 유지되었지만, 농장 규모 확대와 청년의 도시유출로 20세기 후반에는 상징적 문화유산 중심으로 변화했다.

5.5 일리노이·미시간: 산업도시와 북부 자원경제

Illinois는 Chicago와 Rockford라는 두 도시형 중심과 western Illinois의 Swedish agricultural colonies를 결합했다. Chicago의 Scandinavian population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대규모였으며, North Side의 상업·교회·신문·하숙집·노동시장이 이민자 적응을 조직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족지구는 이탈리아계·동유럽계와 경계를 재편하고 교외로 이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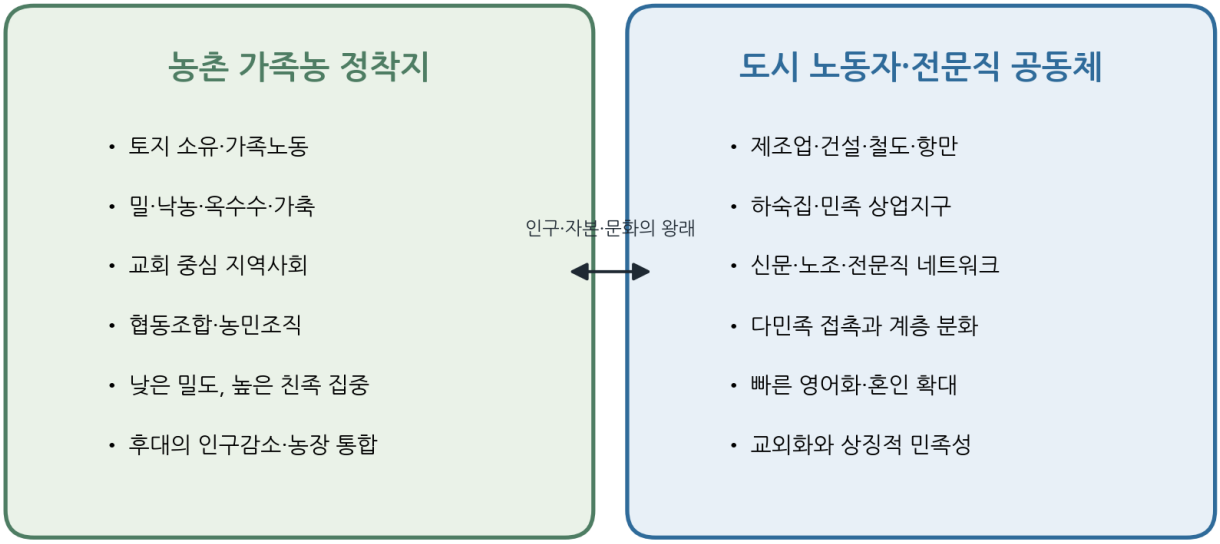
Rockford는 Swedish immigrant artisans와 industrial entrepreneurs가 가구·기계·금속산업을 발전시킨 대표적 사례다. 민족 네트워크는 취업과 자본조달에 유리했지만, 기업가와 노동자의 계급갈등도 존재했다. Michigan은 Lower Peninsula의 농업·도시 정착보다 Upper Peninsula의 Finnish mining·logging가 더 강한 북유럽적 특징을 보이며, 좁은 스칸디나비아와 넓은 Nordic 지리의 차이를 보여준다.

5.6 워싱턴·오리건·몬태나: 2차 이주와 서부의 자원경제

Pacific Northwest의 Scandinavian settlement는 유럽에서 직접 온 이민뿐 아니라 Minnesota·Wisconsin·Dakotas에서 서쪽으로 이동한 2차 이주가 컸다. Seattle의 Ballard와 Puget Sound에서는 Norwegian·Swedish workers가 fishing, shipbuilding, lumber, maritime trade에 참여했다. Portland와 Oregon의 Columbia River·coastal towns에서는 fishing·logging·construction·commerce가 중요했다.

Montana와 Idaho의 mining towns, railroads, timber regions, irrigated agriculture에도 Scandinavian workers와 farmers가 들어갔다. Montana의 오늘날 높은 비율은 인구가 작은 주에서 19세기 말 정착이 오래 지속된 결과다. Utah는 일반적인 북서부 자원경제와 달리 Danish Mormon migration의 영향으로 덴마크계 비중이 두드러진다.

서부 정착은 본국의 해양·산림 기술이 활용되었지만, '자연환경의 친숙함'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대륙횡단철도, 항만의 임금, 어선·제재소의 노동수요, 토지기업, 기존 중서부 네트워크가 실제 이동을 조직했다.



두 유형은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 농산물·노동·교육·혼인·신문·철도로 연결된 하나의 지역체계였다.

그림 4. 가족농 정착지와 도시 노동·전문직 공동체의 구조적 차이

6. 교회·가족·학교·신문·상호부조와 문화 유지

6.1 루터교회의 제도적 역할

루터교회는 예배와 구원을 넘어 이민자의 사회적 인프라였다. 새 정착촌에서 교회는 공동묘지·학교·회의장·구호기금·혼인망·농업정보를 제공했다. 목사는 통역자·교사·편지작성자·분쟁조정자 역할을 했고, 교단은 순회선교사를 보내 흩어진 농가를 교구로 조직했다. 교회달력과 확인례는 세대의 통과의례를 통제하며 공동체의 규범을 유지했다.

그러나 루터교는 '민족 통합'보다 분열과 경쟁으로 특징지어지기도 했다. Norwegian synods는 본국 교회관, 미국 부흥주의, 예정론, 평신도 권한, 노예제·남북전쟁, 교육언어를 둘러싸고 갈라졌다. Swedish Augustana와 Mission Covenant, Danish Grundtvigians와 Inner Mission도 서로 다른 학교와 출판망을 만들었다. 교단 분열은 자원을 분산했지만 동시에 다수의 대학·신학교·병원·출판사를 낳았다.

20세기 중반 교단 합병과 영어화는 민족별 경계를 약화시켰다. 오늘날 ELCA와 여러 보수적 루터교단 안에서 스칸디나비아계 기원은 제도적 기억으로 남아 있지만, 실제 교인 구성은 훨씬 다인종·다민족화되었다.

6.2 민족학교와 고등교육

농촌에서는 주일학교·여름학교·교구학교가 모국어 읽기와 성경교육을 담당했다. 도시에서는 민족학교가 공립학교와 병행하거나 방과후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공립학교의 확대와 영어의 경제적 가치, 제1차 세계대전기의 반외국어 분위기는 2세대의 영어 전환을 가속했다.

교단 대학은 민족문화 보존기관이면서 미국사회로의 통합기관이었다. Luther, St. Olaf, Gustavus Adolphus, Augustana, Augsburg, Bethany, Concordia 등은 목회자·교사 양성에서 출발해 전문직과 지역지도자를 배출했다. 이 대학들은 모국어를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 시민교육·영어·과학·상업교육을 확장했기 때문에 '동화에 저항'하는 기관과 '동화를 촉진'하는 기관이라는 두 성격을 동시에 가졌다.

6.3 신문·출판·상호부조

민족신문은 이민사회가 자신을 상상하는 핵심 매체였다. Norwegian-American의 Decorah-Posten·Skandinaven, Swedish-American의 Hemlandet·Svenska Amerikanaren, Danish-American의 Dannevirke·Bien 등은 본국 정치, 미국 선거, 교단 논쟁, 농업가격, 광고, 문학, 부고를 제공했다. 신문은 지역을 넘어 하나의 '민족 공론장'을 만들었지만, 교단·정당·편집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치열하게 경쟁했다.

Sons of Norway, Vasa Order of America, Danish Brotherhood 같은 상호부조·친목단체는 사망·질병 급여, 보험, 장례, 사교행사를 제공했다. 도시 노동자에게는 가족 밖의 안전망이었고, 중산층에게는 사업·정치 네트워크였다. 20세기 복지국가와 상업보험이 확대되면서 경제적 기능은 줄었지만, 문화행사·유산교육·여행·계보활동이 중심이 되었다.

6.4 음식·축제·언어와 세대별 정체성

음식은 일상적 생존기술에서 민족 상징으로 변했다. lefse, lutefisk, krumkake, Swedish meatballs, lingonberry, aebleskiver는 초기에는 가정과 교회 식사의 일부였지만, 세대가 지나면서 축제와 모금행사의 표지로 재구성되었다. 기후·재료·미국 식품산업에 맞춘 변형이 많았으므로 '순수 전통'이라기보다 이민지에서 발명된 전통에 가깝다.

Syttende Mai, Midsommar, Danish Days, Lucia 행사와 민속무용·의상은 언어가 약화된 뒤에도 지속될 수 있는 상징적 민족성을 제공했다. 1세대는 출신 마을·교단·언어를 중심으로 정체성을 구성했고, 2세대는 미국인과 민족성을 조정했으며, 3세대 이후에는 선택적·여가적·계보적 정체성이 커졌다. 1960년대 이후의 ethnic revival은 박물관·축제·대학 프로그램·관광을 통해 이 유산을 재상품화했다.

영어 전환은 도시·혼인·교육·전쟁 동원과 함께 진행되었다. 농촌 교구에서는 모국어가 더 오래 지속됐지만, 2세대의 경제적 이동과 타민족 혼인이 확대되면서 가정언어는 영어로 바뀌었다. 오늘날 혈통 응답이 높다고 해서 Norwegian·Swedish·Danish가 가정에서 사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7. 교육·협동조합·정치·노동운동의 형성 조건

7.1 높은 교육·시민참여: 문화와 구조의 결합

스칸디나비아계 정착지의 높은 문해력과 학교참여는 본국의 루터교 문해 전통, 확인례를 위한 독서, 비교적 넓은 초등교육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성과는 토지 소유와 지역세수, 교단 학교, 주립대학의 농업확장, 소도시의 인구안정, 이민자의 선택효과에 의해서도 형성됐다. 교육을 '민족적 성격'으로만 설명하면 가난한 광부·벌목공·도시노동자의 경험과 지역 간 차이를 지운다.

시민단체 참여 역시 작은 농촌 공동체의 상호의존, 교회·학교·협동조합이라는 조직기회, 영어 습득과 귀화, 지역선거의 접근성이 결합한 결과였다. 동질성이 신뢰를 높인 경우도 있었지만, 교단분열과 계급갈등, 여성·비교인·타민족의 배제도 존재했다.

7.2 협동조합과 농민운동

grain elevator, creamery, cooperative store, rural credit, mutual insurance는 농민이 철도·곡물상·도매상·은행에 대항해 거래비용과 가격위험을 줄이는 수단이었다. Nordic countries의 협동조합 경험이 아이디어와 인재를 제공했지만, 미국 중서부의 협동조합은 Populism, Farmers' Alliance, state regulation, 농업대학, 시장구조와 결합해 발전했다.

North Dakota의 Nonpartisan League와 state-owned Bank of North Dakota, Minnesota의 Farmer-Labor tradition은 Scandinavian farmers의 참여와 연관되지만 단일 민족의 산물이 아니었다. German-Russian, Anglo-American, labor unions, urban reformers와의 연합이 필요했다. 경제적 불만, 철도운임, grain grading, credit, taxation이 정치적 급진화를 설명하는 직접 변수였다.

7.3 진보주의·사회주의·노동운동의 다양성

Norwegian·Swedish immigrants는 공화당의 자유토지·반노예제 전통, Progressive reform, Farmer-Labor politics, Socialism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참여했다. 일부 Lutheran leaders는 절제·교육·도덕개혁을 지지했지만 노동급진주의를 경계했다. 도시의 Swedish·Finnish workers는 노동조합과 Socialist press에 더 가깝고, 부유한 농민·상인·전문직은 공화당 또는 지역 보수정치에 결합할 수 있었다.

여성은 교회 자선·선교·교육·금주운동을 통해 공적 영역에 진입했고 Scandinavian Woman Suffrage Association 같은 조직은 민족 네트워크를 참정권 운동에 활용했다.[11] 그러나 여성의 무급 교회노동과 가사서비스는 종종 '공동체 성공'의 보이지 않는 기반이었다.

복지국가적 가치관과 현대의 정치성향을 혈통에서 직선적으로 도출하는 것은 위험하다. 오늘날 Minnesota·Washington의 진보적 정치와 Dakotas의 보수화는 도시화, 산업구조, 교육수준, 종교재편, 정당의 인종·문화정치, 농촌 인구감소에 의해 크게 달라졌다. 동일한 Scandinavian ancestry가 서로 다른 당파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8. 정착식민주의·백인화·다인종 관계의 비판적 분석

8.1 원주민 토지와 '빈 땅'의 신화

Minnesota·Dakotas·Wisconsin·Montana·Washington의 정착지는 원주민이 비어 둔 공간이 아니었다. Dakota/Lakota, Ojibwe, Ho-Chunk, Menominee, Salish, Coast Salish 등은 농업·사냥·어업·교역·계절 이동을 통해 토지를 사용했고, 조약은 종종 강압·기만·지급지연 속에서 체결됐다. 1862년 U.S.-Dakota War와 그 이후의 처형·추방은 Minnesota 정착 확대의 핵심 배경이었다.

스칸디나비아계 이민자는 연방정부의 토지측량·군사력·철도보조가 만들어 놓은 재산권 체계에 진입했다. 일부는 원주민과 교역하거나 선교·혼인을 했고 정책에 비판적인 개인도 있었지만, 집단적으로는 정착식민주의의 수혜자였다. '유럽의 가난한 농민도 피해자였다'는 사실과 '미국에서 원주민 토지 박탈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동시에 성립한다.

따라서 박물관·축제·지역사 교육은 개척자의 용기와 노동만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조약, 강제이전, 생태변화, 원주민의 지속적 주권과 현재의 공동체를 함께 다뤄야 한다.

8.2 인종적 백인화와 시민권의 상대적 이점

Scandinavian immigrants는 억양·종교·빈곤·농촌성 때문에 Anglo-American elite에게 촌스럽거나 열등한 유럽인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대체로 white로 분류되어 귀화, 토지소유, 투표, 공립학교, 직업이동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는 African Americans, Chinese and Japanese immigrants, Native peoples가 법·폭력·배제계약·시민권 제한에 직면한 조건과 달랐다.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적 Protestantism, 유럽계 혼인, 주택소유, 군복무, 영어화가 'unhyphenated white American'으로의 편입을 촉진했다. 민족적 차이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인종적 위계 안에서 비용이 낮은 '선택 가능한 유산'이 되었다. 이 과정은 민족 성공을 문화적 근면성으로만 설명하는 서사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게 한다.

도시에서 Scandinavian workers는 Irish, German, Polish, Italian, Jewish, African American workers와 일자리·주거를 두고 경쟁하거나 노동조합에서 연대했다. Pacific Northwest에서는 Asian exclusion과 anti-Chinese politics, restrictive covenants가 백인 노동자·주택소유자의 기회를 넓혔다. 모든 Scandinavian immigrant가 배제정책을 지지한 것은 아니지만, 구조적 혜택은 개인 의도와 별개로 존재했다.

8.3 다민족 지역사회와 경계 변화

Chicago·Milwaukee·Duluth·Seattle 같은 도시는 민족별 '고립된 섬'이 아니라 다민족 노동시장과 주거시장이었다. 교회·신문·상점은 내부결속을 만들었지만, 공장·노조·학교·대중교통은 경계를 넘는 접촉을 확대했다. 같은 Nordic 범주 안에서도 Finnish의 언어와 노동급진주의, Danish Mormonism, Norwegian Lutheran factions는 상당히 달랐다.

20세기 중반 이후 Scandinavian neighborhoods의 교외화와 주택가격 상승은 새로운 African American, Latino, Asian, refugee communities와의 관계를 바꾸었다. Minnesota의 현대적 다양성은 Somali·Hmong·Latino populations의 성장으로 확대되었고, 'Minnesota identity'를 Scandinavian heritage만으로 정의하려는 담론은 현재 주민의 다원성을 축소할 수 있다.

비판적 역사사회학의 목표는 Scandinavian heritage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동화·지역발전의 비용과 조건을 더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다.

9. 최신 ACS로 본 현재의 인구지리

9.1 전국과 주: 절대 규모와 비율은 다른 지도다

절대 규모 순위는 인구가 큰 주와 역사적 핵심주가 함께 나타난다. Minnesota는 역사적 집중과 대도시 규모가 결합해 압도적 1위다. California는 비율이 낮지만 총인구가 커서 2위이며, Washington과 Wisconsin은 역사적 정착과 현대 인구규모가 모두 크다. Texas·Florida·Arizona·Colorado의 높은 절대 수치는 20세기 후반의 국내이주와 은퇴·Sunbelt 성장의 영향을 반영한다.

비율 순위는 North Dakota, Minnesota, South Dakota, Montana, Wisconsin처럼 역사적 농업·자원 정착지가 선두다. Utah는 Danish ancestry의 Mormon migration 때문에 매우 높고, Iowa·Washington·Wyoming·Idaho·Nebraska·Oregon이 뒤따른다. 따라서 '가장 많은 곳'과 '가장 Scandinavian한 곳'은 동일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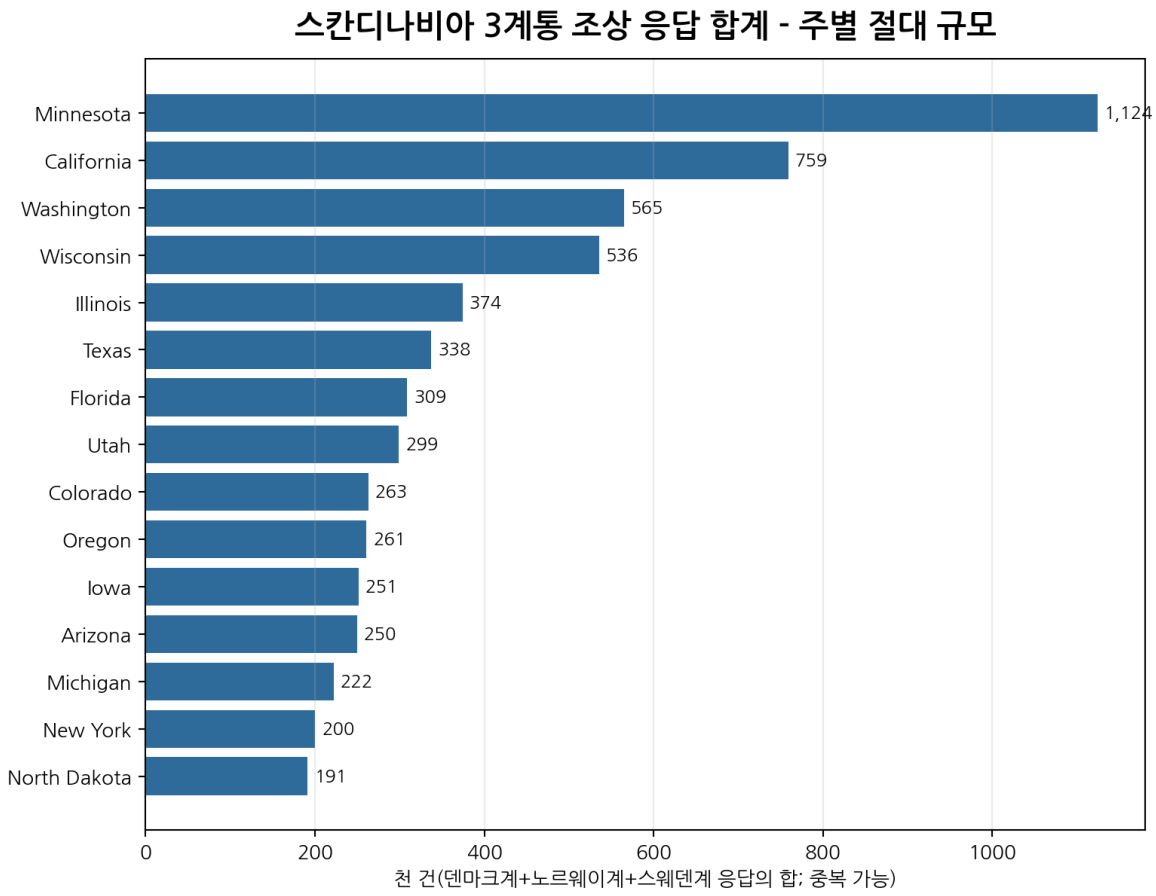


그림 5. 주별 절대 응답 규모 상위 15개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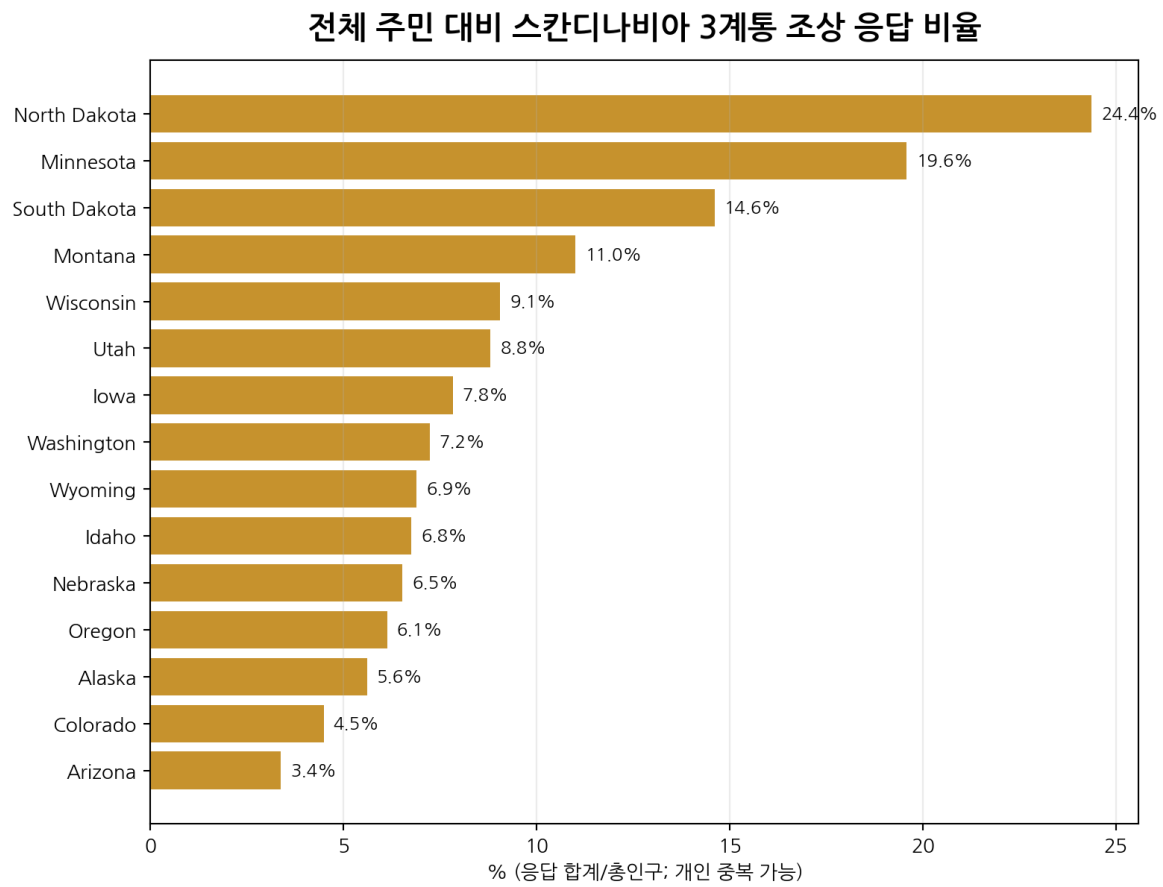


그림 6. 주별 주민 대비 응답 비율 상위 15개 주

주	총인구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3계통 합	비율
Minnesota	5,739,445	692,350	370,417	61,391	1,124,158	19.6%
California	39,287,377	311,609	311,507	135,946	759,062	1.9%
Washington	7,816,116	312,371	194,353	58,308	565,032	7.2%
Wisconsin	5,914,872	363,327	124,541	47,899	535,767	9.1%
Illinois	12,694,798	126,437	211,655	36,313	374,405	2.9%
Texas	30,188,424	145,895	140,876	50,767	337,538	1.1%
Florida	22,416,077	122,084	146,039	40,598	308,721	1.4%
Utah	3,392,331	66,908	97,178	134,778	298,864	8.8%
Colorado	5,862,189	110,572	114,396	38,241	263,209	4.5%
Oregon	4,254,293	131,539	93,437	35,759	260,735	6.1%
Iowa	3,210,507	135,794	71,093	44,541	251,428	7.8%
Arizona	7,378,838	117,177	94,643	37,864	249,684	3.4%
Michigan	10,077,761	71,869	119,137	30,808	221,814	2.2%
New York	19,852,366	74,047	97,601	28,598	200,246	1.0%
North Dakota	784,841	158,982	26,094	6,220	191,296	24.4%
Pennsylvania	13,018,639	40,935	83,969	15,783	140,687	1.1%
Massachusetts	7,044,056	32,259	93,010	13,424	138,693	2.0%
South Dakota	907,428	94,707	23,958	13,979	132,644	14.6%
Idaho	1,934,262	53,240	45,721	31,698	130,659	6.8%
Nebraska	1,978,707	32,857	62,571	33,693	129,121	6.5%

표 3. 스칸디나비아 3계통 응답 절대 규모 상위 20개 주. 합계는 중복 가능.

9.2 민족별 주 순위

노르웨이계

주	응답 추정치	총인구 대비
Minnesota	692,350	12.1%
Wisconsin	363,327	6.1%
Washington	312,371	4.0%
California	311,609	0.8%
North Dakota	158,982	20.3%
Texas	145,895	0.5%
Iowa	135,794	4.2%
Oregon	131,539	3.1%
Illinois	126,437	1.0%
Florida	122,084	0.5%

스웨덴계

주	응답 추정치	총인구 대비
Minnesota	370,417	6.5%
California	311,507	0.8%
Illinois	211,655	1.7%
Washington	194,353	2.5%
Florida	146,039	0.7%
Texas	140,876	0.5%
Wisconsin	124,541	2.1%
Michigan	119,137	1.2%
Colorado	114,396	2.0%
New York	97,601	0.5%

덴마크계

주	응답 추정치	총인구 대비
California	135,946	0.3%
Utah	134,778	4.0%
Minnesota	61,391	1.1%
Washington	58,308	0.7%
Texas	50,767	0.2%
Wisconsin	47,899	0.8%
Iowa	44,541	1.4%
Florida	40,598	0.2%
Colorado	38,241	0.7%
Arizona	37,864	0.5%

민족별 절대 규모는 Minnesota가 Norwegian·Swedish에서 매우 크고, Danish는 California·Utah의 규모가 두드러진다. 비율로 보면 Norwegian은 North Dakota·Minnesota·South Dakota, Swedish는 Minnesota·North Dakota·Nebraska·Utah, Danish는 Utah·Idaho·Nebraska·Iowa가 상대적으로 높다.

9.3 카운티: 역사적 핵심지역과 대도시의 이중 구조

카운티 절대 규모에서는 Hennepin County(Minneapolis), King County(Seattle), Cook County(Chicago), Ramsey·Dakota·Anoka Counties(Minnesota suburbs) 같은 대도시권이 상위에 오른다. California·Arizona·Utah의 대형 카운티도 국내이주와 인구규모 때문에 높다.

비율에서는 northern·western Minnesota와 North Dakota의 소규모 농촌 카운티가 압도적이다. Marshall, Norman, Kittson, Lac qui Parle, Pennington, Polk, Roseau Counties는 historical chain migration과 장기간의 지역 내 혼인·정착 지속을 반영한다. 하지만 작은 카운티의 추정치는 표본오차가 크므로 1-2%p의 순위차를 실질적 차이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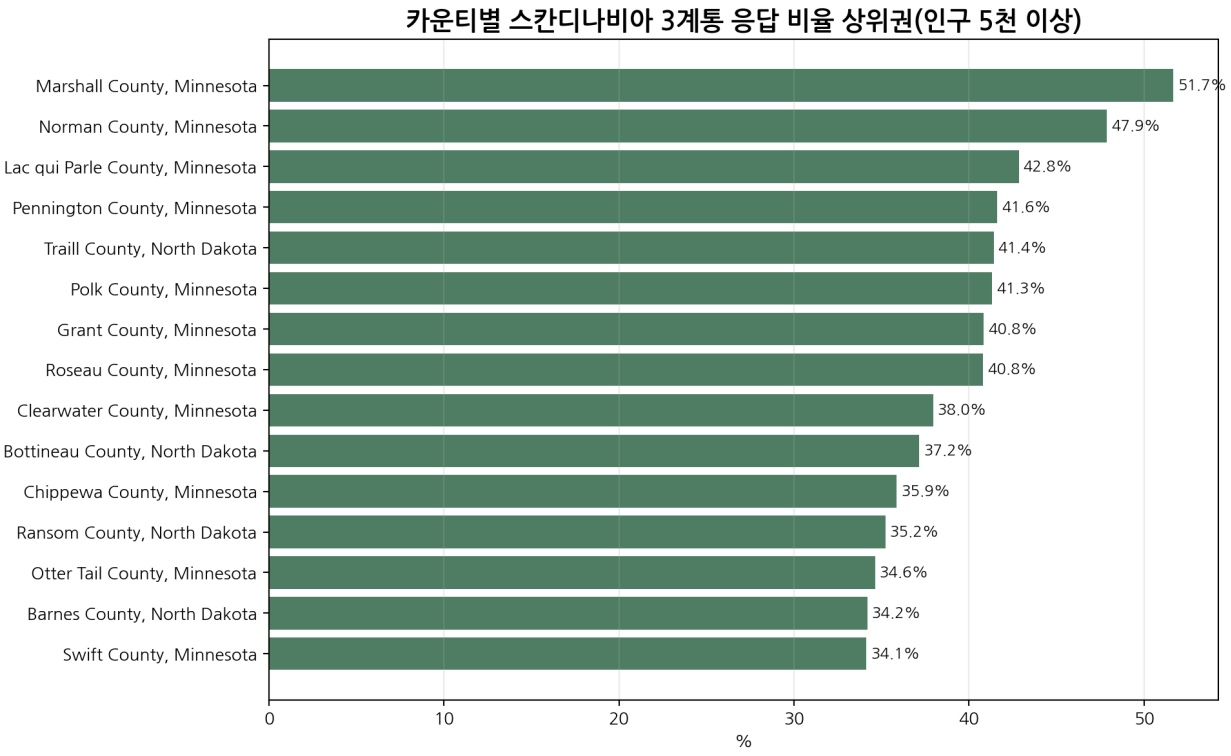


그림 7. 인구 5천 명 이상 카운티의 스칸디나비아 3계통 응답 비율 상위권

카운티	총인구	3계통 응답 합	비율
Hennepin County, Minnesota	1,269,496	224,979	17.7%
Maricopa County, Arizona	4,559,748	158,110	3.5%
King County, Washington	2,287,171	148,613	6.5%
Los Angeles County, California	9,808,667	113,466	1.2%
Cook County, Illinois	5,182,090	104,946	2.0%
Salt Lake County, Utah	1,196,523	97,950	8.2%
San Diego County, California	3,288,774	87,251	2.7%
Ramsey County, Minnesota	542,945	83,300	15.3%
Dakota County, Minnesota	445,771	77,740	17.4%
Snohomish County, Washington	844,430	73,672	8.7%
Pierce County, Washington	930,319	71,155	7.6%
Anoka County, Minnesota	370,349	69,511	18.8%
Utah County, Utah	705,400	69,255	9.8%
Orange County, California	3,165,820	68,377	2.2%
Dane County, Wisconsin	572,674	62,752	11.0%

표 4. 카운티별 절대 응답 규모 상위 15곳.

카운티(인구 5천 이상)	총인구	3계통 응답 합	비율
Marshall County, Minnesota	8,909	4,604	51.7%
Norman County, Minnesota	6,367	3,048	47.9%
Lac qui Parle County, Minnesota	6,682	2,863	42.8%
Pennington County, Minnesota	13,791	5,738	41.6%
Traill County, North Dakota	7,970	3,301	41.4%
Polk County, Minnesota	30,705	12,688	41.3%
Grant County, Minnesota	6,127	2,502	40.8%
Roseau County, Minnesota	15,302	6,243	40.8%
Clearwater County, Minnesota	8,616	3,270	38.0%
Bottineau County, North Dakota	6,378	2,370	37.2%
Chippewa County, Minnesota	12,377	4,440	35.9%
Ransom County, North Dakota	5,643	1,987	35.2%
Otter Tail County, Minnesota	60,475	20,949	34.6%
Barnes County, North Dakota	10,773	3,684	34.2%
Swift County, Minnesota	9,748	3,328	34.1%

표 5. 카운티별 비율 상위 15곳. 소규모 표본의 오차에 유의.

9.4 도시: 대도시의 규모와 소도시의 농도

도시 절대 규모에서는 Minneapolis, Seattle, New York, Chicago, Los Angeles, Phoenix, Portland, Fargo, St. Paul이 상위권이다. 이는 역사적 이민도시와 현대 대도시의 국내이주가 함께 만든 결과다. New York·Los Angeles는 수가 많지만 총인구 대비 비율은 낮다.

대표 도시의 비율은 Fargo 약 29.8%, Duluth 23.7%, Minneapolis 15.9%, St. Paul 12.8%, Madison 8.4%, Rockford 8.0%, Seattle 7.4%, Milwaukee 2.4%, Chicago 1.7%다. Fargo와 Duluth는 주변 농촌·산업지역의 민족집중을 도시 안에 유지하고, Chicago와 Milwaukee는 대도시 다민족화와 교외화 때문에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작은 도시 중 Spring Grove(MN), Westby(WI), Park River(ND), Hawley(MN), Barnesville(MN), Thief River Falls(MN) 등은 40% 안팎 또는 그 이상의 응답 비율을 보인다. 이 수치는 오늘의 언어사용보다 정착의 계보와 지역내 인구 지속성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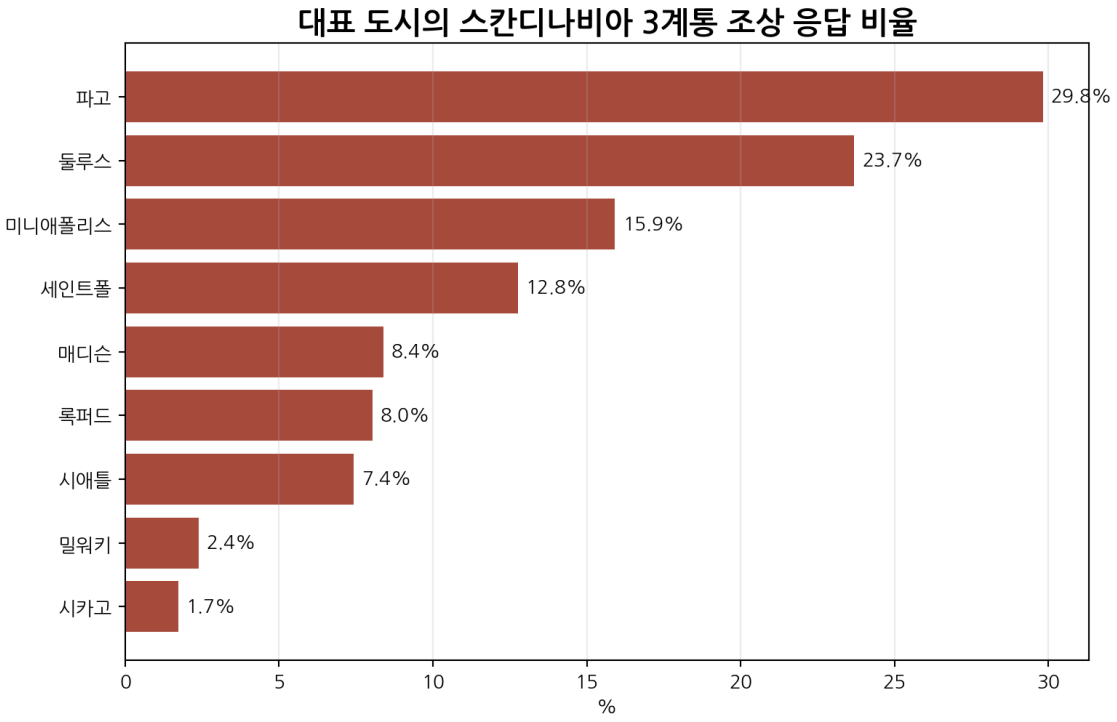


그림 8. 요청된 대표 도시의 스칸디나비아 3계통 조상 응답 비율

도시	총인구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3계통 합	비율
미니애폴리스	427,246	37,564	25,243	5,190	67,997	15.9%
세인트폴	307,284	21,852	15,133	2,222	39,207	12.8%
시카고	2,711,226	16,687	25,425	4,761	46,873	1.7%
시애틀	754,195	27,216	22,633	6,186	56,035	7.4%
매디슨	278,001	16,038	5,567	1,696	23,301	8.4%
밀워키	566,973	7,784	4,326	1,405	13,515	2.4%
파고	131,627	31,669	6,514	1,087	39,270	29.8%
둘루스	87,093	11,047	8,660	931	20,638	23.7%
록퍼드	147,521	3,417	7,475	956	11,848	8.0%

표 6. 대표 도시의 2020-2024 ACS 조상 응답.

9.5 통계 해석의 한계

첫째, ancestry self-identification은 조사시점의 정체성 선택이다. 같은 가계라도 세대·지역·설문맥락에 따라 응답이 달라질 수 있다. 둘째, 복수 조상 응답 때문에 민족별 수치를 합하면 중복된다. 셋째, 소규모 지역의 추정치는 margin of error가 크다. 넷째, 혈통 비율은 언어·교회출석·축제참여·정치성향을 직접 나타내지 않는다.

그럼에도 ACS는 역사적 정착의 공간적 지속성을 비교하는 가장 일관된 전국 자료다. 절대 규모와 비율, 주·카운티·도시, 좁은 Scandinavian과 넓은 Nordic을 함께 봐야 인구지리를 오해하지 않는다.

10. 4개 지역유형과 오늘의 문화·정치·경제적 유산

그림 9. 미국 내 스칸디나비아계 정착지역의 4유형

10.1 핵심 스칸디나비아계 문화권

범위는 Minnesota 대부분, North Dakota, eastern South Dakota, western·northern Wisconsin, northern Iowa를 잇는 띠다. 높은 혈통 비율, 교단대학, 농촌 교회, 민족축제, Norwegian·Swedish place memory가 중첩된다. Twin Cities·Fargo·Duluth 같은 도시는 농촌의 자본·교육·언론·서비스를 연결한다.

오늘의 유산은 대학·병원·비영리단체, 높은 지방자치 참여, cooperative and mutual traditions, regional branding에 남아 있다. 그러나 농촌 고령화·인구감소, 교회 합병, 산업구조 변화, 새로운 이민자의 성장으로 문화권은 더 다원적이 되었다.

10.2 역사적 농업 정착지

Iowa·Nebraska·Wisconsin·Illinois의 농촌, Michigan 일부, Dakotas의 grain belt는 family farm·railroad town·church-school complex가 핵심이다. Norwegian wheat/dairy, Danish dairy/hog, Swedish mixed farming의 차이가 있었지만 시장과 기술 변화에 따라 수렴했다.

오늘날에는 농장 통합과 agribusiness, 청년 유출로 민족적 일상성은 약해졌고, 박물관·축제·교회묘지·역사건축·계보관광이 유산을 보존한다. 정치적으로는 과거의 농민급진주의가 자동으로 현대 진보정치로 이어지지 않으며, 문화보수주의와 농촌 공화당화가 강해진 지역도 많다.

10.3 도시형 이민자 거점

Minneapolis-St. Paul, Chicago, Seattle, Rockford, Milwaukee, Madison, Fargo, Duluth는 서로 다른 산업기반을 가졌다. Minneapolis의 milling·construction·publishing, Chicago의 manufacturing·commerce, Rockford의 furniture·machinery, Seattle의 maritime economy, Duluth의 port·ore·rail, Madison의 education·government가 민족 공동체의 계급구조를 형성했다.

도시에서는 영어화와 타민족 혼인이 빠르고, 민족지구는 교외화·젠트리피케이션·인구교체를 겪었다. 대신 대학·병원·기업·전문직·문화기관에 제도적 흔적이 남았다. 오늘의 'Nordic identity'는 음식·디자인·복지이미지·외교문화와 결합한 소비적·국제적 브랜드로 재구성된다.

10.4 서부 해안 및 산악지역 정착지

Washington·Oregon의 해양·산림도시와 Montana·Idaho·Utah·Alaska는 중서부 핵심권보다 늦고 분산된 정착지다. fishing·logging·shipbuilding·mining·railroad·irrigated agriculture가 중심이었고, 중서부에서의 2차 이주가 중요했다.

오늘날 Seattle·Portland의 Scandinavian heritage는 박물관·축제·교회·해양산업 기억으로 남지만, 기술산업과 대규모 국내·국제이주 속에서 비율은 역사적 소도시보다 낮다. Montana·Idaho는 인구가 적어 혈통 비율이 높게 유지되며, Utah는 Danish Mormon legacy라는 별도 경로를 보인다.

10.5 비교평가

유형	현재 혈통집중	역사경제	주요 유산	현대 변화
핵심 문화권	높음	농업+대도시 서비스	교회·대학·축제·협동조합	농촌감소와 다문화 재정의
역사적 농업 정착지	중~높음	가족농·낙농·곡물·축산	교회묘지·박물관·소도시 축제	농장통합·청년유출
도시형 거점	절대 수는 크나 비율 다양	제조·철도·항만·교육·전문직	기관·기업·지역명·문화센터	교외화·젠트리피케이션·상징화
서부 해안·산악	주별 차이 큼	어업·벌목·광업·해운·철도	해양문화·Nordic museum·Mormon legacy	기술경제·관광·국내이주와 재구성

표 7. 4개 지역유형의 비교평가.

11. 결론

스칸디나비아계 미국인의 역사는 유럽 농촌의 위기와 근대화, 대서양 교통혁명, 미국의 토지·철도정책, 가족·교회 네트워크, 원주민 토지 박탈, 인종화된 시민권이 하나의 공간적 과정으로 결합한 사례다. Minnesota-Wisconsin-Dakotas의 집중은 기후적 선호의 단순 결과가 아니라 초기 정착의 경로 의존성과 철도·토지시장·교회조직의 누적효과였다.

Norwegian, Swedish, Danish immigrants는 공통의 북유럽 배경을 가졌지만 동일한 집단이 아니었다. Norwegian rural concentration, Swedish urban-industrial dualism, Danish dispersion and Mormon/Grundtvigian particularities가 서로 다른 지역지리를 만들었다. Finnish와 Icelandic experiences를 별도 분석하면 'Scandinavian'과 'Nordic'이라는 범주의 정치적·언어적 차이도 선명해진다.

교육·협동조합·지방자치·진보정치의 유산은 중요한 분석대상이지만 문화결정론은 피해야 한다. 자영농 비중, 토지소유, 시장독점, 교단기관, 주립대학, 노동시장, 정당연합, 도시화가 문화와 함께 작동했다. 역사적 Farmer-Labor radicalism과 현대의 다양한 정당성향 사이에는 농촌감소·종교재편·산업변화·인종정치라는 긴 변환이 존재한다.

오늘날 ACS에서 나타나는 높은 혈통비율은 일상 언어나 폐쇄적 민족공동체보다 역사적 정착의 잔존 지형을 보여준다. Minnesota와 North Dakota의 높은 비율, Minneapolis·Seattle·Chicago의 큰 절대 규모, rural counties의 40-50%대 응답은 서로 다른 현상이다. 연구와 보도에서는 반드시 '수'와 '비율', '고유 인원'과 '복수 조상 응답', '역사적 유산'과 '현재 문화실천'을 구분해야 한다.

가장 생산적인 해석은 스칸디나비아계 유산을 미국 예외주의의 성공담으로만 보지도, 단순히 동화되어 사라진 민족성으로만 보지도 않는 것이다. 이 유산은 교회·대학·협동조합·도시산업·지역정치에 제도화되었고, 동시에 원주민 주권과 다인종 미국의 역사 속에서 재평가되고 있다.

최종 평가

핵심 스칸디나비아계 문화권은 오늘날에도 통계적으로 식별되지만, 그 의미는 "북유럽인이 많이 사는 곳"보다 넓다. 그것은 토지·철도·교회·교육·시장·정치가 만든 역사적 제도권이며, 현재는 다문화 지역사회 안에서 선택적 유산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부록 A. 통계표와 대표 지역

A-1. 비율 상위 주 20개

주	총인구	3계통 응답 합	3계통 비율	북유럽 5계통 비율
North Dakota	784,841	191,296	24.4%	25.4%
Minnesota	5,739,445	1,124,158	19.6%	21.3%
South Dakota	907,428	132,644	14.6%	15.1%
Montana	1,116,875	122,969	11.0%	11.7%
Wisconsin	5,914,872	535,767	9.1%	9.7%
Utah	3,392,331	298,864	8.8%	9.1%
Iowa	3,210,507	251,428	7.8%	7.9%
Washington	7,816,116	565,032	7.2%	7.9%
Wyoming	582,397	40,141	6.9%	7.3%
Idaho	1,934,262	130,659	6.8%	7.1%
Nebraska	1,978,707	129,121	6.5%	6.6%
Oregon	4,254,293	260,735	6.1%	6.6%
Alaska	735,706	41,275	5.6%	6.2%
Colorado	5,862,189	263,209	4.5%	4.7%
Arizona	7,378,838	249,684	3.4%	3.6%
Illinois	12,694,798	374,405	2.9%	3.1%
Kansas	2,947,197	86,546	2.9%	3.0%
Vermont	647,106	17,421	2.7%	3.0%
Maine	1,387,817	36,779	2.7%	3.1%
New Hampshire	1,394,868	35,865	2.6%	3.1%

표 A1. 3계통 합은 Danish+Norwegian+Swedish, 5계통 합은 Finnish+Icelander를 추가. 모두 복수응답 가능.

A-2. 비율 상위 카운티 25개(인구 2천 이상)

카운티	총인구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3계통 비율
Marshall County, Minnesota	8,909	3,497	1,062	45	51.7%
Nelson County, North Dakota	3,016	1,304	162	8	48.9%
Divide County, North Dakota	2,167	923	83	44	48.5%
Norman County, Minnesota	6,367	2,704	268	76	47.9%
Kittson County, Minnesota	4,084	1,099	808	27	47.4%
Griggs County, North Dakota	2,245	866	75	35	43.5%
Lac qui Parle County, Minnesota	6,682	2,369	401	93	42.8%
Burke County, North Dakota	2,156	691	151	63	42.0%
Pennington County, Minnesota	13,791	4,500	1,093	145	41.6%
Traill County, North Dakota	7,970	2,895	360	46	41.4%
Polk County, Minnesota	30,705	10,296	2,228	164	41.3%
Grant County, Minnesota	6,127	1,832	579	91	40.8%
Roseau County, Minnesota	15,302	4,506	1,674	63	40.8%
Towner County, North Dakota	2,079	729	34	27	38.0%
Clearwater County, Minnesota	8,616	2,643	538	89	38.0%
Bottineau County, North Dakota	6,378	2,052	285	33	37.2%
Bowman County, North Dakota	2,906	840	137	74	36.2%
Chippewa County, Minnesota	12,377	3,705	635	100	35.9%
Ransom County, North Dakota	5,643	1,700	230	57	35.2%
Otter Tail County, Minnesota	60,475	15,611	4,594	744	34.6%
Renville County, North Dakota	2,304	675	77	40	34.4%
Barnes County, North Dakota	10,773	3,186	316	182	34.2%
Swift County, Minnesota	9,748	2,546	682	100	34.1%
Pope County, Minnesota	11,418	3,033	693	117	33.7%
Clay County, Minnesota	66,059	17,860	3,522	681	33.4%

표 A2. 작은 카운티는 표본오차가 클 수 있으며, 순위는 근사적 비교로 사용해야 한다.

A-3. 도시 절대 규모 상위 25곳

도시	총인구	3계통 응답 합	비율
Minneapolis city, Minnesota	427,246	67,997	15.9%
Seattle city, Washington	754,195	56,035	7.4%
New York city, New York	8,483,844	50,451	0.6%
Chicago city, Illinois	2,711,226	46,873	1.7%
Los Angeles city, California	3,857,263	44,897	1.2%
Phoenix city, Arizona	1,642,323	42,870	2.6%
Portland city, Oregon	641,165	39,969	6.2%
Fargo city, North Dakota	131,627	39,270	29.8%
St. Paul city, Minnesota	307,284	39,207	12.8%
San Diego city, California	1,389,526	33,498	2.4%
Sioux Falls city, South Dakota	201,469	31,905	15.8%
Omaha city, Nebraska	488,837	30,677	6.3%
Denver city, Colorado	718,877	27,540	3.8%
Madison city, Wisconsin	278,001	23,301	8.4%
Austin city, Texas	979,539	22,468	2.3%
Colorado Springs city, Colorado	487,887	22,141	4.5%
Mesa city, Arizona	511,764	21,625	4.2%
Duluth city, Minnesota	87,093	20,638	23.7%
Lincoln city, Nebraska	294,856	18,642	6.3%
Houston city, Texas	2,328,253	17,929	0.8%
Rochester city, Minnesota	122,330	17,915	14.6%
Spokane city, Washington	230,293	17,654	7.7%
San Francisco city, California	830,235	17,553	2.1%
Grand Forks city, North Dakota	59,042	17,259	29.2%
Bloomington city, Minnesota	88,665	17,117	19.3%

표 A3. 인구 5천 명 이상 incorporated place 중 절대 규모 상위.

A-4. 도시 비율 상위 25곳(인구 5천 이상)

도시	총인구	3계통 응답 합	비율
Thief River Falls city, Minnesota	8,823	3,627	41.1%
Crookston city, Minnesota	7,344	2,962	40.3%
Fergus Falls city, Minnesota	14,181	5,681	40.1%
East Grand Forks city, Minnesota	9,028	3,220	35.7%
Montevideo city, Minnesota	5,315	1,864	35.1%
West Fargo city, North Dakota	40,094	13,053	32.6%
Valley City city, North Dakota	6,541	2,124	32.5%
International Falls city, Minnesota	5,642	1,750	31.0%
Mound city, Minnesota	9,107	2,742	30.1%
Moorhead city, Minnesota	45,036	13,553	30.1%
Fargo city, North Dakota	131,627	39,270	29.8%
Alexandria city, Minnesota	14,735	4,333	29.4%
Grand Forks city, North Dakota	59,042	17,259	29.2%
Tea city, South Dakota	6,786	1,916	28.2%
Zimmerman city, Minnesota	6,546	1,816	27.7%
Chisago City city, Minnesota	5,899	1,575	26.7%
Stewartville city, Minnesota	6,807	1,817	26.7%
Detroit Lakes city, Minnesota	10,025	2,671	26.6%
Shoreview city, Minnesota	26,714	7,111	26.6%
Delano city, Minnesota	6,942	1,817	26.2%
Baxter city, Minnesota	8,966	2,294	25.6%
Waconia city, Minnesota	13,434	3,431	25.5%
St. Anthony city (Hennepin and Ramsey Counties), Minnesota	9,671	2,468	25.5%
Arden Hills city, Minnesota	9,658	2,439	25.3%
Ham Lake city, Minnesota	16,702	4,203	25.2%

표 A4. 소도시는 ACS 표본오차에 유의.

부록 B. 주요 출처와 연구문헌

[1] U.S. Census Bureau. 2020-2024 American Community Survey 5-Year Estimates, Detailed Table B04006, “People Reporting Ancestry,” and B01003, “Total Population.” https://data.census.gov / https://api.census.gov/data/2024/acs/acs5/variables.html

[2] Library of Congress. “The Swedes,” Immigration and Relocation in U.S. History. https://www.loc.gov/classroom-materials/immigration/scandinavian/the-swedes/

[3] Library of Congress. “The Norwegians,” Immigration and Relocation in U.S. History. https://www.loc.gov/classroom-materials/immigration/scandinavian/the-norwegians/

[4] Library of Congress. Nordic and Scandinavi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Research Guide. 2026. https://guides.loc.gov/nordic-scandinavian-emigration

[5] National Archives. “The Homestead Act of 1862.” https://www.archives.gov/education/lessons/homestead-act

[6] National Park Service. “Native Americans and the Homestead Act.” https://www.nps.gov/home/learn/historyculture/native-americans-and-the-homestead-act.htm

[7] Minnesota Historical Society, MNopedia. “Norwegian Immigration to Minnesota.” https://www.mnhs.org/mnopedia/search/index/norwegian-immigration-minnesota

[8] Library of Congress Blog. “The ‘Happy Danes’ vs. the ‘Sad Danes’: Assimilation and Religious Divide Amongst Danish-American Immigrants.” 2020. https://blogs.loc.gov/international-collections/2020/10/the-happy-danes-vs-the-sad-danes-assimilation-and-religious-divide-amongst-danish-american-immigrants/

[9] Minnesota Historical Society. “Swedish Immigration to the U.S./Svensk invandring till USA.” https://www.mnhs.org/newspapers/swedishamerican-migration

[10] Minnesota Historical Society, MNopedia. “Swedish Immigration to Minnesota.” https://www.mnhs.org/mnopedia/search/index/swedish-immigration-minnesota

[11] Minnesota Historical Society, MNopedia. “Scandinavian Woman Suffrage Association.” https://www.mnhs.org/mnopedia/search/index/group/scandinavian-woman-suffrage-association

[12] Encyclopedia of Chicago. “Danes” and related entries on Norwegians, Swedes, and Chicago neighborhoods. https://www.encyclopedia.chicagohistory.org/

[13] Wisconsin Historical Society. “Where They Settled in Wisconsin” and Old World Wisconsin Scandinavian Homesteads. https://www.wisconsinhistory.org/

[14] Gjerde, Jon. The Minds of the West: Ethnocultural Evolution in the Rural Middle West, 1830-1917.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7.

[15] Gjerde, Jon. From Peasants to Farmers: The Migration from Balestrand, Norway, to the Upper Middle We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16] Lovoll, Odd S. The Promise of America: A History of the Norwegian-American Peopl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revised editions.

[17] Lovoll, Odd S. Norwegians on the Prairie: Ethnicity and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Town. Minnesota Historical Society Press, 2007.

[18] Barton, H. Arnold. A Folk Divided: Homeland Swedes and Swedish Americans, 1840-1940.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94.

[19] Blanck, Dag. Becoming Swedish-American: The Construction of an Ethnic Identity in the Augustana Synod, 1860-1917.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2006.

[20] Granquist, Mark. Lutherans in America: A New History. Fortress Press, 2015.

[21] Schultz, April R. Ethnicity on Parade: Inventing the Norwegian American through Celebr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94.

[22] Jacobson, Matthew Frye. Whiteness of a Different Color: European Immigrants and the Alchemy of Ra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23] Roediger, David R. Working Toward Whiteness: How America’s Immigrants Became White. Basic Books, 2005.

[24] Olson, Daron W. Vikings Across the Atlantic: Emigration and the Building of a Greater Norway, 1860-1945.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3.

[25] National Park Service. “The Dawes Act” and related materials on homesteading, tribal lands, and westward expansion. https://www.nps.gov/articles/000/dawes-act.htm

편집·저작 표기

작성자: 코리아베스트 (https://koreabest.org) / The American Newspaper (https://americannewspaper.org).
이 문서는 연구·보도·교육 목적의 종합 분석보고서이며, ACS 추정치와 역사자료의 한계를 본문에 명시하였다.